

#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 (녹) 연중 제 29 주일



전담신부 : 진윤기 토마스 아퀴나스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 [ 교황님 기도지향 - 10 월 ]



#### 복음화 지향 : 모든 이에게 열린 교회

언제나 복음에 충실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연대와 형제애와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 시노달리타스를 실천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전례** 우리는 두 팔을 축 늘어뜨린 채 하느님께 기도하기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재판관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 달라고 줄곧 조르는 과부의 비유를 드시며,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는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의 말씀을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선포하기로 다짐합니다.

**제1독서**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17,8-13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였다.>

**화답송** 시편 121(120), 1-2.3-4.5-6.7-8 (◎ 2 참조)

◎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말씀입니다. 3,14—4,2

<하느님의 사람은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복음 환호송** 히브 4,12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1-8

<하느님께서서는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부르짖을 때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신다.>

**영성체송** 시편 33(32),18-19 참조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주님은 죽음에서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때 먹여 살리신다.

**영성체 후 묵상**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 부르짖으며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종 모세가 팔을 벌리고 바친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기도하려고 모인 당신 백성을 굽어보시어, 새로운 백성이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며, 세상을 위협하는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또한 주님께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들을 의롭게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 오늘의 복음 묵상 - 전원 바르톨로메오 신부 ♣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려드립니다. 재판관은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안하무인의 인물입니다.

안하무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만이 가장 옳바르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 고집불통인 재판관입니다. 모르긴 해도, 그 고을에는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또 더러는 소송을 제기해 보지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재판관 때문에 제대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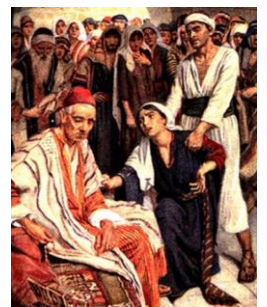
그 고을에 어떤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에게 하소연할 곳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소연할 곳이라곤 오직 재판소밖에 없습니다.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어 올바른 판결을 하는 것밖에는 달리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쉽사리 그녀의 송사를 해결해 줄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부는 이에 낙담하거나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재판관에게 청원을 합니다. 마침내 재판관은 귀찮아서 과부의 청을 들어줍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청원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다면,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절망하거나 굴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께 청원을 드리는 참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대화는 중간에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대화가 단절된다면, 그 대화는 결국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주님께 자신의 청원을 드린다면, 자비 가득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처지를 헤아리셔서, 지체 없이 당신의 사랑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묵상 1+1> 과부가 바란 것은 "올바른 판결"

오늘 복음에서 "올바른 판결" (루카 18,3.5.7.8)이라는 말씀은 네 차례나 나옵니다. 여기에서 "올바른 판결"이란 졸라대는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맞는 판결을 뜻합니다.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하며 선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느님께 올바른 판결을 기도 중에 청해보시다.



| 연중 제 29 주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최후의 심판'(부분). 슈테판 로흐너 작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루카 18,8).

.....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전교의 달(10월)과 전교주일(10월 23일)**

교회는 1926년부터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의 전(前) 주일을 '전교 주일'로 지정해 전교 지역의 교회를 위한 특별 헌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이에 발맞춰 한국교회도 1970년부터 10월을 '전교의 달'로 지내 왔습니다. 교우분들의 정성스런 봉헌을 바랍니다. [호주 전교 단체 후원 링크] <https://www.catholicmission.org.au/ways-to-donate>



**위령의 날(11월 2일) 미사 안내**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은 죽은 모든 이, 특히 연옥 영혼들이 하루빨리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날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날에 위령 미사를 봉헌해 오고 있습니다.

**공동체 미사: 11월 2일(수) 오후 7시, St Vincent de Paul Church, Aranda**

**위령성월의 8일(11월 1일~8일)간 묘지 방문 전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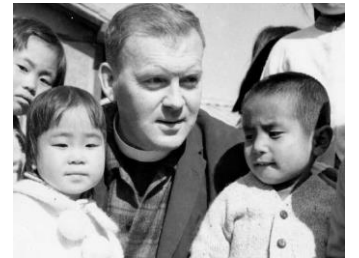
가톨릭 교회는 '모든 성인 대축일'인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정성껏 묘지를 방문하여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위 기간 중에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성체를 모시고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성체는 전대사를 받기 원하는 날마다 모셔야 하며, 고해성사는 이 기간 중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전대사의 요건 중의 하나인 교황님의 지향을 위하여 주님의 기도 한 번과 성모송 한 번을 바치고, 전대사를 받기 원하는 날에 열심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여 마음속으로 잠시 동안이라도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위령성월(11월) 미사 전 연도 안내**

위령성월 동안 주일 미사 30분 전부터 위령들을 위한 연도를 바칩니다. 많은 교우분들의 정성스런 참여를 바라며, 올해 선종 2주년(11월 9일)을 맞는 황 프란치스코(프랭크 페리, Fr Francis John Ferrie) 신부님과 올해 2월 선종하신 두 분의 캔버라교구 은퇴사제(로리 블레이크-Fr Laurie Blake(9일), 헨리 번-Fr Henry Byrne (15일))분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랭크 페리 신부님]



[로리 블레이크신부님]



[헨리 번 신부님]

**성모 행렬(Marian Procession)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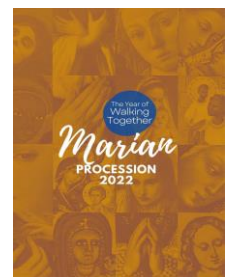
우리 공동체에서는 올해 대교구 성모 행렬에 참여합니다. (※ 이날 공동체 미사는 없습니다.)

일시와 장소: 10월 23일(주일), 11:00~16:00, St Clement's Retreat and Conference Centre, Galong

※ 단체버스 출발시간 및 장소 : 오전 9시, 성당(St Vincent de Paul Church, Aranda)

[성모 행렬 식순] 11:00 고해성사→11:30 미사→12:30 점심식사→14:00 성모당(聖母堂) 행렬

[성모 행렬 안내] <https://www.catholicvoice.org.au/event/marian-procession-2022/>



**The Grand Anglo-Indian Ball (무도회) 행사 안내**

일시: 10월 29일(토) 저녁 7시 부터 12시

장소: The Canberra Southern Cross Club, 92-96 Corinna Street, Woden

주최: The Australian Anglo-Indian Association of Canberra

[이벤트 링크] <https://cmcf.org.au/the-grand-anglo-indian-ball/>

예약 문의: [joe.bailey@bigpond.com](mailto:joe.bailey@bigpond.com) / 02 6241 4464

티켓 가격: \$75 (뷔페 저녁 포함) / 복장: Formal

**로컬 다문화 미사 안내**

일시: 11월 6일(주일) 오전 10시

(※ 이날 공동체 미사는 없습니다.)

장소: St Vincent de Paul Church

(7 Bindel Street, Aranda, 2614)

미사 후 음식나눔·친교

※ 한복 착용 권장





| 연중 제 29 주일 주간실천 |

**GREEN WORLD**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18**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

**생활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6**  
**EM으로 만든 비누 사용해보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

**어안채**

목주 기도 성월

[성모님께서 목주 기도를

"꼭" 바치라고 권유하시는 이유]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박상운 토마스 신부님의 목주 기도 강의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입문 10]

하느님, 존함이 어찌 되시는지요?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탈출기 1부 | 1-18

**바로로딸복스앤미디어**

교회론 박사 최현순 교수의

시노달리타스 미니 강의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시노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보시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주일 미사 참례자수

10 월 2 일	성인 32 아이 9	10 월 9 일	성인 35 아이 11
----------	------------	----------	-------------

□ 우리들의 정성 (10 월 8 일(토)~14 일(금))

구민식	권묘순	김요한	남궁영근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전인철	주정자					

교무금 \$520 (11 가정), 봉헌금 \$235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 062786 / Account Number :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 (10 월 16 일, 연중 29 주일) 주정자 루치아, 허준 안토니오

(10 월 23 일, 연중 30 주일) 마리안 프로세션 (※ 이날 공동체 미사는 없습니다.)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 (16 일) 요한반 → (23 일) 마리안 프로세션 → (30 일) 마태오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 2 주 1 회, 매월 첫째주 식사) : (16 일, 간식) 루카반 → (11 월 6 일, 식사) 마르코반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해룬 루카(루카반, 18 일) 형제님의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목주 기도 성월 기도 ♡

<https://missa.cbck.or.kr/Prayer/29>



♡ 반가운 교우 소식 ♡

안경록 도미니코 형제님과  
 안후승 소화 데레사 자매님 부부

